

역사서 출간의 순기능과 역기능

정옥자

서울대 교수 · 국사학

우리 사회는 일제의 식민지 지배와 6·25 전쟁으로 인하여 주체성과 도덕성을 상실하고 그것을 회복할 겨를이 없었다. 현재의 정치판을 비롯한 사회 전 분야에 팽배하고 있는 부패와 혼란은 잃어버린 민족자부심을 회복하지 못하고 생존문제에만 매달려온 결과다. 겨우 그 1차 원적인 생존논리에서 벗어나 민족정체성에 대한 자각이 고조되던 시점에서 IMF라는 찬물을 뒤집어씌움에도 불구하고 역사서들이 계속 나오는 현상은 자신의 뿌리에 대하여 인식을 깊이 하려 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

어떤 문제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우리가 해온 작업은 대개 서구 여러 나라와 비교하는 것이었다. 동서양을 비교하는 방법은 19세기 말 개화사상이 성립되고 그것이 1세기에 걸쳐 시대사상으로 기능하던 상황에서 가장 확실한 비교의 잣대로 정당성을 확보해 왔다. 최근에 와서 동서 비교의 틀이 별 효과를 보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사회의 여러 양상들이 서구화하여 변별력을 잃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고급에 대한 비교가 시작되고 우리 역사에 오늘날의 모습을 비추어 보는 것이 유효하다는 인식이 공감대를 넓혀가고 있다.

그러나 대중적인 역사물들이 지나치게 현재적 기준에 의하여 과대포장되거나 인기에 영합하여 역사를 보는 시각에 혼선을 초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조선왕조실록'으로 이름난 책이 됐다 하여 '고려왕조실록'이라는 책을 써서 고려시대에도 왕조실록이 있었던 것처럼 오해하게 만들거나, 대중적인 취향에 맞추어 목차를 만들고, 여기저기서 내용을 베껴 놓고도 일말의 변명이나 양해도 구하지 않는 행위 등은 올바른 독서문화 형성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이보다 더 위험한 일은 역사의식의 문제다. 현재의 정치판이 권력투쟁 이외의 그 무엇도 아니라고 하여 역사서에서도 모든 정치행위를 권력투쟁으로만 묘사하거나 역사적 인물들을 희극화시키고 품격을 떨어뜨리는 행위도 역사의식을 오도하는 주범이다. 흥미위주로 엮다보니 역사물로서의 의미나 시대적 배경에 대하여 몰각하거나 무시하는 경향도 없지 않은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서들이 계속 출간되고, 특히 18세기 조선문화의 전성시대에 대한 연구서들이 최근에 붐을 이루고 있는 현상은 더욱 고무적이다. '진경시대'로 규정되는 이 시대야말로 전통문화가 절정에 이른 문예부흥기로서 우리 문화의 거대한 뿌리에 해당한다. 동아시아 최고의 문화국가를 자부하던 이 시대에 대한 탐구가 계속되고 있는 것은 21세기 우리 사회의 르네상스를 위한 준비운동이며 고통스러운 경제난국에 대한 문화적 대안 모색으로 평가될 수 있다. ❖

표지 인터뷰	2	과학자의 눈으로 바라본 동양사상과 생명 《삶과 은생명》 펴낸 장희익 교수
초점	4	출판사들이 사라지고 있다 폐휴업 등 위축 ... 도매상 부도여파 체감
기획 취재	6	'나 홀로' 출판인의 좌절과 희망찾기
추모의 글	7	온민 서수옥 선생을 기리며
집중 취재	8	'지적 감수성' 일구는 출판미학의 전위들
소식	9	한국간행물윤리위, 청소년도서 선정·외
해외의 출간	10	정진석 엮음 《일제시대 민족지 압수기사 모음 1·II》
출판화제	12	가을의 서점가, 음악향기로 그을
	13	처음부터 끝까지 한달음에 읽는 사전
책갈피 산책	11	이덕일 《사도세자의 고백》을 읽고 - 박종원
	21	베이컨·아생보 《화가의 잔인한 손》을 읽고 - 김소영
특집 에세이	14	내 추억 속의 문고본 박홍규/한승원/김천혜/임철우/ 유경환/고종석/황상익/정재서
출판 포럼	18	프랑스 도서 유통의 과정 - 뱁상 마르티
주제가 있는 책읽기	20	'지금 여기서' 탈식민주의 읽기 - 김성기 중심과 주변을 양극화하는 세계관에 도전한다
나의 초기작과 최근작	22	끊임없이 새로운 과정에 도전하는 길 - 김용운 《수학의 약점》에서 《제2건국론》까지
만화	23	책과 오대리 - 박시백
해외 도서전	24	프랑크푸르트 국제도서전 한국관 준비 박차·외
해외 서점 탐방	26	문고본 전문서점 '아셰트 포코테크' - 최연구
인터넷 출판향해	27	프랑스의 갈리마르 웹사이트 - 조형준
서평	28	지두환 《조선시대 사상사의 재조명》 - 김향수 매코맥 《일본, 허울뿐인 풍요》 - 신복룡
	29	킨들버거 《대공황의 세계》 - 김균 로스네 《미래를 원한다》 - 이정주
이 책 그 사람	30	《딱정벌레에게 배우는 광고발상법》 펴낸 박현주씨 《북한을 움직이는 테크노크라트》 펴낸 이재승씨
	31	《디지털이 세상을 바꾼다》 펴낸 백육인 교수
	32	새책 속으로 / 36 새로 나온 책
다시 보는 사진집	48	17 최영모 《댄스 누드》